

# 몸 사랑\*

2023년 6월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58호



- 02 들어가는 글\_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육(손호빈 신부)
- 04 나누고싶은 이야기\_ 내 아이가 꼭 알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틴스타 교육(김귀경)  
나누고싶은 이야기\_ 틴스타 성교육을 진행하면서(임승후)
- 07 교육후기\_ 몸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이정원 수녀)  
교육후기\_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하나님(강동채)
- 10 파트너십 프로그램\_ 사심없는 선물(김혜선 수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마치고(김형일)
- 11 사천동에서 온 편지(지현수녀)
- 14 틴스타 지금

## 성부 하느님께서 맡기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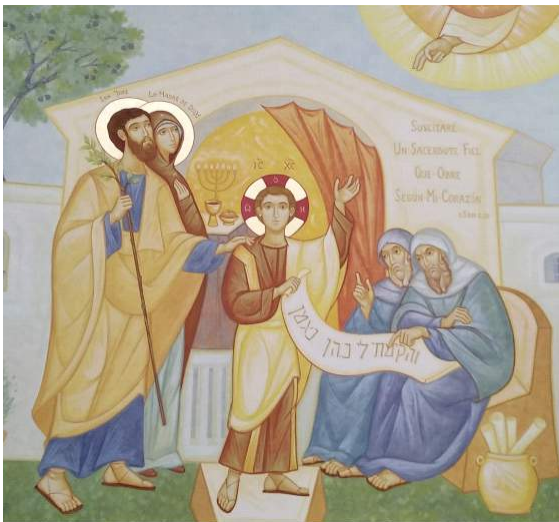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  
(한국틴스타 연구위원)

오늘날 우리에게서 참된 부모의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된 부성은 소년을 남성으로 성장시켜주며, 소녀로 하여금 남성으로부터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참된 모성은 소녀를 여성으로 성장시켜주며 소년이 어떻게 여성을 존중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바로 좋은 부모의 원천이자 근원

참된 부모의 역할은 창조주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바로 좋은 부모의 원천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성전에서 찾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물던 소년 예수님의 모

습(그림)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두 살 정도의 소년은 정면을 응시하며 하늘을 가리키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소년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부모의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루카 2,48)라는 걱정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루카 2,49).

###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진 요셉의 손과 하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시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와 요셉이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소년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곳, 즉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손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하느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쉽지 않지만 위로가 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맡겨진 것이지만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년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 있는 요셉의 손은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루카 2,51)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 자녀는 소유가 아닌 선물 부모는 증인이며 교사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진 요셉의 손과 하늘을 바라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시선에는 가정 교육의 신비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에게 삶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는 성부께서 그 자녀를 맡기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선물이며, 부모는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첫번째 교사이자 가장 중요한 교육자입니다. 참된 교육은 우리 아이의 근원과 운명, 그들에게 고유한 존엄성을 부여하신 분, 그들의 발걸음을 기꺼이 동반하고 충만한 삶을 발견하도록 부르고 계신 분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가능합니다.

###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교육

나아가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뿐만 아니라 율법 학자들도 봐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년 예수님을 위해 글, 수학, 역사 등 하느님 백성의 모든 문화를 증언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교육자의 다양한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들 중 한명은 화가 난 표정인데, 이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인내심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율법학자의 얼굴을 통해 분노에서 놀라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1사무 2,35)라고 적힌 히브리 본문을 숙고하는데, 이 문구는 그가 말문이 막힌 채 놀라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알고 있고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것에 새로운 충만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동안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1사무 2,35).

### 아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빛을 지펴줘야

이와 비슷하게, 모든 교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진리와 선에 대한 학생의 능력에 놀라움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 놀라움을 통해 부모뿐 아니라 교사도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교사의 사명은 아이에게 많은 내용, 수학, 행사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볼 수 있는 빛을 아이에게 지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면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아이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가르치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 가정과 학교는 하느님의 현존을

#### 발견하고 체험하는 장소

표지 그림은 부모나 교사는 병풍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는 불필요한 울타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맡겨진 선물이며, 가정은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해주는 첫번째 학교입니다. 교사에게 학생은 부모와 함께 인격적 교육을 하는 협력자이며, 학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아이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줘야 하며, 그들에게 좋은 스승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그들에게 비취 주실 것입니다.

\* 본 글은 호세 그라나도스 신부의 ‘Educar desde el Padre’를 참조하였습니다.

## 내 아이가 꼭 알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틴스타 교육

푸른숲발도르프학교  
학부모 김귀경

저는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하는 학교 푸른 숲발도르프학교 학부모, 김귀경입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와 함께 만난 '한국틴스타'의 성교육 프로그램(교사양성워크숍)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부모교육의 하나였어요.

각 학년을 대표해서 함께 한 학부모들의 첫날은 성교육이라는 주제의 교육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살피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한두 번의 성교육을 받아 본 터라 대략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하고 있었는데, 교육이 시작되면서 짐작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안전한 성생활에 중점을 둔 기존 성교육에 불편한 마음

이전의 성교육은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인 성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성 경험 또한 훨씬 이른 나이에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죠.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

들에게 전달할 생각을 하면 마음 한편이 늘 불편해지곤 했는데요, 한국틴스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 축복과 생식력 자각이라는 전혀 다른 시작점에서 출발한 한국틴스타

몸이 지닌 축복과 생식력 자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한국틴스타 교사양성워크숍은 흥미로웠고, 내 아이에게 꼭 알려 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교육이었어요. 여성으로써 알게 된 자연주기법 또한 매우 과학적이라고 생각했고 더 빨리 알았었다면 참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교육을 받던 중 '경아의 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디지털 성범죄를 겪게 된 주인공이 한국틴스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교사양성워크숍에서 받은 감동 때문에 틴스타 프로그램도 망설임 없이 시작

이렇게 교육받은 한국틴스타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 우리 학교 9학년(일반학교 중3) 아이들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도 딱히 없고 게다가 성교육인데 커다란 망설임 없이 해보겠다고 한 것은 교육받는 동안 느꼈던 이러한 감동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틴스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한 수업 첫날, 9학년 아이들과의 만남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어요.

12년제 대안학교인 우리 학교는 담임 과정인 8년 동안 또 이후에도 되도록 아이들은 미디어

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학교에서 공부하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 문화와 인터넷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이러한 점 때문에 수업내용을 살짝 조정해 나가며 진행하고 있어요.

매 수업 생소한 용어를 들으면 호기심으로 커지는 아이들의 눈동자와 거침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아주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던 틴스타 선생님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저는 지금 9학년 아이들과의 4번째 만남을 준비하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수업에서 나누게 될지, 아이들은 보지 못한 2주 동안 또 얼마나 자라있을지 궁금합니다.

두근두근 설렘과 기대가 있는 아이들과의 만남, 틴스타 프로그램이 주는 행복한 선물입니다.



▲ 191차 푸른숲발도르프 교사양성워크숍

## 틴스타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푸른숲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임승후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은 모든 부모에게 숙제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저 또한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시기에 아이들이 다니는 푸른숲자유발도르프 학교에서 가톨릭 성교육, 한국 틴스타 교사양성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하기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워크숍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부모를 위한 성교육, 교사양성워크숍’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김혜정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인식이 성교육의 출발이라는 다소 무겁지 않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배우는 입장에서 큰 부담 없이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하는 성교육

‘성’에 대한 이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온전한 자기 증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이(相異)하기 때문에 온전한 ‘성교육’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셨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성교육의 본질과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배운 점들을 전달하고 공론화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때로는 간단하게, 때로는 제법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큰 아이들에게는 ‘성관계’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이 유익로 접근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자기를 증여한다는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제가 ‘교사양성워크숍’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밝고 건강한 시선으로 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

푸른숲자유발도르프 9학년 남학생들의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사양성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수업의 목표를 아이들이 가지는 ‘성’에 대한 인식이 밝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학생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같은 미디어로부터 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 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같이 진행함으로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 가능

통상적으로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나 친구, 또는 학교 선배들을 통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성에 대한 인식이 은밀하며,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알면 부끄러운 것이어서 숨겨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미디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과 아울러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건전한 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성에 대한 편견이 없는 어린 시절에 인격적 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성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 상태 즉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일 때 성교육을 시작해야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인식, 상대방에 대한 인식,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한결같아야 하고 그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마련된 ‘교사양성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었던 점과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된 점, 무엇보다 이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인식을 전달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가톨릭의 인격적 성교육, 한국 틴스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몸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

이정원 데오필라 수녀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 198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입회 전에 교회의 열심한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서원 후 삼십 대 수도자로 살아가면서나, 본당 사도직에서 신자분들을 만나면서나, ‘성’과 ‘사랑’에 대한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실제 삶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그래서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뒤로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가르침이 고루하다고 탓하지만, 정작 누구도 제대로 말하거나 듣지 못했고, 민감한 현실과 맞물려 언급하기 조심스러워하는 내용이라 여기며, 오랜 시간 혼란 속에서 고민과 의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점액관찰과 자연주기법

6년 전쯤 처음으로 틴스타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몸·성·인격·사랑·생명·책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은 저에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었고 어디 가서 전달하기도 좋았습니다. 반면 점액관찰과 자연주기법은 제가 수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 같으면 안 한다.’ 싶었습니다. “점액관찰은 무슨,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거 매번 들여다보고 앉아있냐?”, “자연주기법은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방법 아니야? 저런 얘기

하면, 수녀는 결혼 안 해서 현실 모르는 소리 한다는 말이나 듣지.” 하고 투덜거리며, 이걸 비현실적이고 요즘 사람들에게 전혀 맞지 않으니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연주기법만 빼고 해주면 좋겠는데, 틴스타의 베로니카 선생님은 자꾸만 생식력 자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니!!

### 가치를 살아가는 방법인 자연주기법

그러다 지난 22년 12월에 본당(마산 교구 장승포) 자부모들과 함께한 틴스타 워크숍에 저도 다시금 참여했는데, 강의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합체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동의했던 그 좋은 가치들을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자연주기법으로 귀결된다는 것! 자연주기법이 부부에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부부가 보다 인격적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선의의 있음도 납득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단지 출산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가 관계를 하면서 ‘하느님을 포함해서 할 건지, 빼고 할 건지’의 문제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몸의 생식 주기를 살피가면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의 위장 상태를 살피가면서 먹는 양과 때를 조절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어요.

### 날마다 기록하며 눈으로 확인하는 내 몸에 주어진 질서

알아들은 바를 내 몸으로 확인하고자 워크숍 이후 석 달 동안 이어서 점액관찰을 직접 해보니, 점액 양상의 변화와 후기 건조일수가 정말로 주기마다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록하면서 내 몸에 주어진 질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신기했고, 그렇게 세 주기를 돌고 나니 점액관찰과 자연주기법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

신이 들었습니다. 틴스타의 베로니카 선생님께서는 “직접 해봐야 알아요.”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지요.

### 점액관찰을 통해 생식력을 자각할 때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자유를 체험

내 힘이나 내 선택으로가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몸 안에 주어진 생명의 질서’가 내 몸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진실을 명확히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에 실재하고 있는 질서를 부정하고 귀찮게 치부하는 문화 속에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또 그래야 마땅한 권리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러운 생명의 질서를 거스를수록 하느님을 부정하며 자기 욕구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점액관찰을 통해 내 몸 자체가 하느님의 생명력에 연결되어 있음을 하루하루 자각하며 살아갈 때, 몸을 통해 하느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느님께 받은 생명을 보다 잘 나누게 되며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틴스타 프로그램을 권유하면서 저의 체험을 이야기했더니, 수녀가 점액을 관찰하고 최고수정일을 찾는 것을 생경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오히려 저는 제 몸의 질서를 직접 확인하면서 그간 품어왔던 의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힘있게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생명력, 그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구원의 여정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사도직 현장에서 저의 삶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주신 하느님

강동채 에라스모  
(마산 교구 장승포 성당)  
\* 198차 교사양성워크숍 수료

75년생인 저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무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영향인지는 모르나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하느님의 교리와 첫영성체를 모시고 나 자신도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싶어 기쁨과 감사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며 미사 적응과 교회의 생활이 편해질 때쯤, 틴스타라는 몸과 생명 존중, 생식력 자각이라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아들의 성교육 때문에 접한 틴스타는 내 자신에게 더 필요한 교육

시작은 14세 아들 성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직 차원에서 집사람과 같이 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순간 전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아들 성교육이 아닌 내 자신의 인격적 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지했고 지금까지 삶을 어긋나게 살아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지금 부터라도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한 매우 소중한 교육 이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 수녀님과 교리교사 선생님께 소중하고 착한 친구들의 틴스타 교리 수업을 제안 받았습니다. 누굴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풍부한 전달력 있는 언변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나에겐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의 교육 경험은 군생활에서 쫓따구(쫓병)들을 집합시켜 강제주입 및 빠따로 한 참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여리고 어린 친구들의 성교육을, 나 자체도 쥐뿔도 모르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준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도하는 삶**

고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내 삶의 활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무슨 공부, 어떤 노력으로 제2의 삶을 알차고 보람되고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를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번째로 가톨릭에 몸을 담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에게 기도하는 새로운 생활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틴스타가 알려준 몸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두 번째는 틴스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내가 몰랐던 아니 전혀 알 수 없었던 나와 타인의 몸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란 것을 알게 해준 “틴스타”.

여러 선생님과 신부님 한분 한분 부르고 싶은 이름들입니다. 너무나 좋은 분들께서 멀리 거제도까지 오셔서 해주신 좋은 말씀과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새로운 교육이었고, 제

인생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과 신부님 그리고 틴스타를 알게 해주신 저희 본당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틴스타 공부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께서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 월” 내가 찾고 있는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틴스타 아니냐? 나를 믿고 해보아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을 알기 전부터 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틴스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할 공부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 알려 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답해 주실 꺼라고. 그리고 기도의 답을 찾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틴스타 교사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틴스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 꼭 알려 주어야 겠다는 결심을 해 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신앙의 깊이도 얕지만, 1년 만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전 의탁합니다. “책임지십시오.”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어린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입과 마음을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 사심없는 선물

김혜선 플라치다 수녀  
(착한목자수녀회)

\* 2023년 5월 12일부터 14일, 2박3일 동안 명동 영성 센터 게스트룸에서 한국틴스타 지역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심없는 선물'이라는 주제의 파트너십 연수가 있었습니다. 58호 소식지에서는 연수를 동반해 주신 김혜선 플라치다 수녀님의 글과 연수에 참가한 김형일 선생님의 글을 빌려 연수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유익한 정보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기념일들과 가입을 축하하는 한국틴스타 단독방에 나의 이름이 걸려있다. 수도원에서 주어지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늘어나는 단독방에 어느 정도까지 인기척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틴스타 방이다. 슬쩍 발을 빼자니 뭔가 섭섭하고 아는 척을 하자니 이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애매한 상황에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늘 그렇듯이 김혜정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다.

제안을 듣다보면 꼭 해야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것이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성사된 일이다. 스스로 가진 자원이 없는 것 같고 감각도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괜히 한다고 그랬나 고민하고 있던 이른 봄 날, 김혜정 선생님과 손호빈 신부님이 청춘열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에 나타나셨다. 그때 받은 느낌은 '틴스타 교사들께 정성을 쏟고 계시는구나'였다. 그래서 나도 이 프로그램에 진심이고 싶어졌다.

우리는 커다란 전지를 펴 놓고, 프로그램의 목적, 참가자들의 필요, 필요한 시간 등을 종이 위에 끄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와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지와 공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우리 셋은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프로그램을 다듬어 갔다.

프로그램의 구성이 완성되었을 때, 손호빈 신부님은 '사심없는 선물'이라는 간판을 걸어 주었고 우리는 '매우 만족'을 클릭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겐 파트너십을 체험함은 물론 서로의 선물을 주고 받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여정이 시인 마중기님의 '우화의 강'을 닮아 있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그 강에 맡겨보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 사이에 하나의 목적지를 향한 물길이 텄다.





먼 곳에서부터 서울 명동까지, 지칠법한 여행이 자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을 물씬 풍기며 숙소에 도착하시던 모습들, 혼자 방을 쓰신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모습들, 일상으로부터 물러나와 명동거리에서 도시락을 즐기며 감사해하는 모습들, 프로그램 안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개방하고 튜스타 교사로서 처한 상황을 직면하시던 모습들과 함께 그 사이사이를 음악으로, 음식으로, 격려로, 지혜로운 제안들로 채워주셨던 김혜정 선생님과 손호빈 신부님 그리고 경청과 침묵으로 현존하셨던 양주열 신부님의 섬김이 어우러져 '사심없는 선물'이 되었다.



오랫만에 뵈게 된 튜스타 선생님들, 그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짙은 생명의 향기가 아직도 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한다. '생명'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울컥한 향기는 "긴 말 하지 않아도 미리 몰살

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는 강"이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로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실개천이 모여 '튜스타'라고 하는 큰 강이 힘차게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설령 그 물길 아래서 돌멩이들이 자갈자갈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한국튜스타 교사들'의 파트너십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사랑받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즉 '파트너십'은 사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사심없이 우리의 선물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중에 나누어 받았던 선물에 충만함이 열어질 무렵 다시 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이토록 공들여 '한국튜스타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파트너십을 알려드리려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특히, 2박3일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신 분들과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접는다.

“아무려면 한국튜스타라고 하는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마치며

김형일 사도요한  
(구미김천틴스타 담당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5월 12일(금) 퇴근 후 KTX열차에 올랐습니다. 주말을 틈타 안에서 힐링으로 보낸다는 주관적 바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서울역 다음 명동역에 내렸습니다. 20시 조금 넘어 도착한 명동성당 영성센터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반가운 분들을 뵙고 기쁨을 나누는 후 참으로 편안한 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집인 이유에 기도와 수면 이외에 다른 할 일이 없는 밤 시간의 단순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역시 단순한 생활은 저의 영혼뿐 아니라 몸에도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의 "다섯 손가락을 통한 물길 트기"는 김혜선 플라치다 수녀님의 진정성 넘치는 안내에 동의하며 모두 자신의 장단점과 이웃의 평가, 삶의 중요 장면들, 하느님의 이끄심을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삶에 함께하시는 하느님 손길과 눈길을 나누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감사와 놀라움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보다 더 좋은 물길 트기는 없었습니다. 마종기 시인이 <우화의 강>에서 노래한 물줄기가 제대로 트이고 강물로 함께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묘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란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물줄기가 틈스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생들, 교사와 학생들, 지역틴스타와 한국틴스타 사이에도 흘러야함을 직감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현장에서 틈스타 선생님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돌부리'를 찾아 상황극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업자료를 한 가득 안고 본당 마당에 들어선 틈스타 교사가 마주치게 되는 본당 신부님, 학부모, 학생들의 반응을 실연하며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공감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틴스타가 제공하는 기쁨과 성장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심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로부터 흘러 넘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주어지고 서로 나누게 하는 선물로, 생명, 사랑, 인격의 가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은 한국틴스타의 이름으로 누리는 하느님의 크신 선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사랑과 일치이 끈이었습니다. 이 끈 속에 각 지역의 선생님들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원의와 기대,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희망과 기도가 더불어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우리 사이에 트이고 한국틴스타라는 큰 강물을 이루어 하느님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믿고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함께하시는 일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의 혼이 잠잘 때 내가 지켜보아 주고 그대가 나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기도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천동에서 온 편지

\*199차 사천동성당 교사양성워크숍이 끝나고 본당의 워크숍 담당자였던 지현수녀님이 한국틴스타에 보내주신 순편지입니다. 수녀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에 영광 받으소서.

주님 안에서 경애하올 김혜정 선생님께.

그동안 먼 길을 오가시며 애써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0행시를 지어보았어요.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김 이 모락모락 나는 따스한 밥상을 다시금 정성껏 차려주고 싶어졌어요.

혜 안을 가지신 틴스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 때마다 바쁜 일상을 숨겨두고 미뤄두었던 내어준의 사랑이 점차 피어났지요.

정 말로 하나되는 부부의 사랑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아있는 풍요로운 선물임을 깊이 깨달았어요.

베 갓잇을 눈물로 적시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날들을 돌아보니 이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로 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니 일, 내일, 니편, 내 편을 따지며 불만만 토로했던 지난 시절의 제가

카 카오텍 단독방에 보내주신 생리주기 학습표와 감정주기표를 기록하며 점액관찰과 감정들을 대면하여 진짜 감정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제 몸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으며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픈 갈망을 키워가는 제가 되었지요.

선 생님이 걷는 훌륭한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 명과 사랑의 소명을 더욱 키워가며 충만한 매일을 살아가시는 베로니카 선생님!

님 이신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길 사천동 성당 자모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알아봅시다.

SEX	SEX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녀 이원성인 생물학적 성</li> <li>- 생명출산을 위한 몸의 구조와 관련됨</li> <li>- 물리적, 객관적 현실,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과 여성이 성별이원성을 토대로 남자 혹은 여자로서 고유한 성적 특질을 드러냄</li> <li>-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 차원 등 총체적인 차원에서 드러남.</li> </ul>
G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시대나 사회, 혹은 문화 안에서 남녀의 성적 차이가 삶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관련됨</li> <li>- 시대: 19세기 후반까지 여성의 참정권, 교육, 경제활동이 제한됨</li> <li>- 사회, 문화 : 오늘날에도 종교나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의 교육이나 사회 참여를 제한함.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교육, 취업, 의사표현의 기회, 가사노동과 양육의 전담 등 여성을 차별하거나 반대로 남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요구들이 있음</li> </ul>	



참고영상

지역 틴스타 소식

2023 상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경주	근화여자중학교(소년소녀)	김경숙, 김미정, 신보경 선생
	대구	효성여자고등학교(여성)	배수경, 박미정 선생
	대전	가톨릭대학교(성인)	이의정 신부, 김혜정 선생
	서울	동성중학교(소년소녀)	장경준 수사 외 1명
	수원	푸른숲자유발도르프(소년소녀)	김귀경, 임승후 선생
	인천	학익동성당(소년소녀)	이병주 선생
	포항	오천중학교(소년소녀)	고연미, 문태근, 정익주, 최성금, 윤경희 선생
종교 단체	거제	장승포성당(소년소녀)	강동채, 김유진, 이수환 선생
		장승포성당(어린이)	김유진 선생
	경주	성건성당(성인)	김민아 선생
	대구	옥수성당(어린이)	정대현, 이혜정 선생
	서울	세검정성당(어린이)	박준형 선생
	청주	사천동성당(성인)	지현수녀
	포항	장량성당(어린이)	김경숙, 최지원, 최가홍 선생
장량성당(소년소녀)		문태근, 민경신 선생	
기관	인천	박문유치원(어린이)	황윤정, 강성실, 김지윤, 오미선 선생
		연수구청소년소녀센터(소년소녀)	김진경 선생

소개특강

- 2.22 인천 새반장모임
- 3.7 인천 교구수녀연합회
- 4.22 구미김천 중리성당 자모회원
- 4.22 서울 개포동성당 첫영성체 자모반
- 4.25 인천 박문유치원 부모
- 5.21 대전 노은동성당
- 6.11 서울 서대문성당
- 6.12 인천 영종동성당 자모회

기획프로그램

- 5.2 구미김천 성의여중
- 6.2 대구 효성초등학교

경기북부

- 4.22/ 6.5 지역교사모임

서울

- 1.9/ 2.6/ 3.6/ 4.3/ 5.8 월례미사

인천

- 3.9/ 4.11/ 5.20 월례미사와 회의



▲ 구미김천 중리성당 소개특강

## 한국 틴스타 소식

### 인사발령

- 2023년 2월 14일 서울대교구 손호빈 신부가 한국틴스타 연구위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 지역틴스타 파트너십

- 3.13 전국 지역담당교사 회의
- 전국 지역담당교사 파트너십 연수  
2023.5.12.~14 명동 영성센터  
주제: 사심없는 선물

### 부모 세미나

- 7차 부모세미나(9-11세, 12-13세, 온라인)  
2023.2.2.~2.23 고성성당 워크숍 심화과정
- 8차 부모세미나(12-13세)  
2023.5.24.-7.12 방학동성당 첫영성체 부모반

### 교사양성 워크숍

- 199차 청주사천동성당 워크숍(8회)  
2023.1.28.~3.18
- 200차 수원교구 워크숍(8회)  
2023.2.11.~4.1(구)수원대리구청
- 201차 온라인 워크숍(12회)  
2023.3.6.~5.15

### 발간

- 고해성사, 성체성사로 향하는 문  
: 호세 그라나도스 신부 저, 손호빈 신부 편역
- 정결 리플렛 3종 제작
- 한국틴스타 엽서 7종 제작

### 생명주일

- 5.7 제13회 생명주일 생명존중행사 참여  
: 남녀생식기관 관련 퀴즈, 한국틴스타 발행 책자, 리플렛, 엽서의 판매와 배부, 후원금 모집

### 전국강사연수

- 2023.6.9.~11 명동 영성센터  
주제: 생명의 선물  
-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생명윤리(정재우 신부)  
- 질병예방이라는 이름의 생명경시(임견주 교수)

### 자연주기법 앱

- 생식력 자각을 위한 내 몸 다이어리 앱 출시  
- 생명위원회와 한국틴스타 공동 개발  
- 교사-학생, 부부간 차트 공유 가능  
-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생식력 자각을 위한 내 몸 다이어리'를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용

iOS용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충만한 생명력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틴스타와 함께해주세요.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804-490599**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제로페이로 후원하기도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후원금은 직불카드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므로 별도의 후원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 제13회 생명주일

2023년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에  
한국틴스타 선생님들을  
초대합니다.

## 인간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회복해야할  
혼인과 가정, 인간 존재

성적 존재,  
혼인과 가정 안에서 삶을 완성하는 존재,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인간

성 심리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바라봅시다.

지역모임과 전국모임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역모임

**1팀** 서울, 수원, 인천, 의정부  
9.9~10(예정) 명동 영성센터(예정)

**2팀** 부산, 거제, 울산, 제주  
10.8~9 분도 명상의 집

**3팀** 대구, 포항경주, 구미김천  
10.28~29 한티 피정의 집

### 전국모임

11월 중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발행일 2023년 6월 (통권 58호)  
창간호 2004년 10월  
발행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E-MAIL [kteenstar@hanmail.net](mailto:kteenstar@hanmail.net)  
전화 02)727-2357~9 / 02)755-2629  
팩스 02)727-2243

---

표지그림: 스텔라 마리아 대학교 경당의 벽화